

## 일본 인구의 고령화와 가족\*

박 영 진

이 글은 일본사회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상과 일본가족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와 가족간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통계자료와 연구문헌, 그리고 1994 2월말에 행한 동경 현지 연구에서의 면담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첫번째로는 일본 인구변천의 특징과 그에 따른 인구 고령화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두번째로 일본 가족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령자 부양문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신체적 개호, 생활보호, 정신적 부양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사회는 출산력의 지속적인 감소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1994년에는 사상 최저인 0.29%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내었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9%로 집계되었다. 앞으로 2000년에 들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년인구비율을 갖는 나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추세와 아울러 1970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점차적으로 일본도 가족의 기반이 약화되고 가족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결과적으로 사회보장기금, 의료혜택 등의 사회적 자원과 가족의 노인부양부담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증가할 고령인구의 자립적인 생활여건, 근로수요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의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기능의 회복, 가족의 중요성과 함께 가족의 결속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노인들의 재태개호를 정책적으로 권장하여 그를 위한 시설, 서비스 제공등의 사회적인 지원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I. 서론

18세기 이래 인류사회의 주요한 변화는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의 3가지로 요약된다. 산업화는 기술혁명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도시화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적 생활양식의 일반화를 통해서 인간의 생활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근대화의 내실을 다지는 것들로서 사회과학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여기에 반하여 고령화라고 하는 현상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여 인구의 연령구조상의 변화에 의한 “인구의 근대

\* 이 글은 1993년도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화”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안에서 고령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출산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한 것이다. 즉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은 불가피하게 인구의 고령화현상을 가져오고, 인구의 고령화는 여러가지 인구, 사회, 경제적 영향을 초래한다. 선진사회에서는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현상을 이미 경험하였고 고령사회의 도래를 맞이하여 고령화대책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기단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가장 중요한 도전적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은 인구변천을 완료한 최초의 비서구국가이자 세계 최장수국으로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장수하고자 하는 인류공통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주어진 생명이 도중에서 불행하게 죽을 확률은 점차 낮아지고, 그러니만큼, 어느 누구도 천명을 맞이하려는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거리낌없이 고령사회의 도래를 환영하는 사람은 일본사회에 어느 정도이겠는가? 고령자의 수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사회의 활력이 저하된다고 생각하는 등, 본 궤도에 진입해 있는 고령사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고령화 사회를 인식하기도 한다.

인구의 고령화는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활동을 필두로 하여 사회생활,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변동요인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본적인 단위 차원(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그만큼 변화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적어진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차원에서의 노동의 방법, 소비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추구되는 것은 물론이고 행동규범과 의식, 가치관의 구조변화가 추구된다.

예를들면, 일본의 가족양식을 근본적으로 지탱해 온 유교적 가족(윤리)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개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유교적 가족관과의 불일치가 지금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급격한 고령화문제와 더불어 노인부양 및 가정내 개호담당문제로 수렴한다. 고령자의 증가는 후기고령자<sup>1)</sup>, 혹은 “자리에 누워있는” 노인, “병들어 있는” 노인의 증가를 수반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개호할 사람과 가족의 직접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생긴 가족체계의 변화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증

1) 후기고령자는 고령자중에서도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말하며, 후기고령인구비의 변화를 보면, 1992년 현재 전체인구의 5.2%가 7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나타나고, 그 비율은 2000년에는 6.86%, 2025년에는 14.48%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시키고 있다. 또한 인구의 동향과 가족의 동향은 불기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현상과 함께 동시에 가정기반의 충실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사회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상과 아울러, 일본사회 변화의 한 측면으로서의 일본 가족의 변용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와 가족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통계자료와 연구문헌, 그리고 1994년 2월말에 행한 동경 현지연구에서의 면담자료를 이용하였다.

## II. 일본 인구의 변천과 고령화문제

### 1. 일본 인구변천의 특징

일본은 서구문화권 밖의 국가들 중 최초로 인구변천을 완결한 국가이다. 그래서 일본의 인구변천은 서구사회와는 다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하에서 경험된 것이다. 일본은 서구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사망력과 높은 출산력으로부터 낮은 사망력과 낮은 출산력으로의 인구변천을 이미 경험했고, 이러한 변천은 경제발전을 동반했다. 특히 사망력의 변천과정에서 볼 때, 개발도상국들처럼 사망률이 단기간에 급속히 감소하기보다는 장기간을 두고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일본에서의 사망률의 감소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근대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출산력에 있어서는 비록 수준은 낮지만 서구 사회와는 다른 출산력의 유형을 보이며, 이러한 출산력 유형의 차이는 일본의 경제, 사회적 구조, 가족구조, 성역할 등의 여러 출산의 결정요인에 있어서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서구의 인구변천과정에서 평등주의적 성역할과 핵가족 구조는 낮은 출산력에 도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일본에서는 출산력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서구 사회와 일본의 출산유형의 차이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여성에게 있어서 “모성”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고, 여성들을 위한 전문직의 희소성 및 상대적인 부족, 그리고 유교적 영향 등으로 최소한 전후시기까지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무자녀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부부간의 감정적인 유대나 동료애, 즉 동반자로서의 부부관계를 덜 강조해 왔으며, 반면에 세대간의 유대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Morgan et al, 1984). 가족으로부터 얻는 감정적 만족감은 배우자에서보다 자식에게서 더 많이 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첫 출산간격(결혼과 첫 자녀출산 간의 시기)이 짧고, 영원히 무자녀로 남는 것이 그리 흔하고 자발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구인들보다 더 많은 자식을 원하는 일본인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일본에서 출산력수준의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결혼의 연기나 늦은 자녀의 출산현상의 존속은 일본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사회에서는, 전통적 규범이 아직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다른 동양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에서 자녀의 출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늦은 자녀의 출산은 결국 늦은 결혼연령에 기인한다. 이러한 늦은 결혼연령에 대한 설명은 우선적으로 일본 사회의 결혼시장의 성격과 결혼 후 부부간의 성별 역할분담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결혼의 준비는 상대방 성의 매력 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결혼시장에서 가치가 부여되는 요인들에 초점이 모아진다. 남성의 경우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 여성의 경우는 “모성”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 등 결혼을 위한 준비작업이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또한 교육의 구조면에서도 역시 남녀가 서로 쉬이는 경우가 드물고,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차별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노동시장과 임금체계의 구조에 의한 설명이 가능하다. 남성들의 경우, 20대 초반 연령층에서는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낮은 임금을 받으나, 기업내에서의 고용보장과 연공서열(seniority)에 의해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오를 것을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 남성들은 자신들의 경제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높은 주택가격 등 열악한 일본의 주택사정이 결혼의 연기경향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해 준다.

## 2. 일본의 인구추세

인구성장율의 변화를 통하여 일본의 인구변천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표 1-1〉 참조), 우선 19세기 말경 일본의 인구성장은 연평균 인구성장율 0.5-0.8%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인구성장은 사회,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인구의 증가를 장려하였고,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동안에는 실제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했다. 인구증가는 산업발전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의 증대에 부응하여 노동력 제공의 원천이 되었다. 즉 농업인구의 높은 출산력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머지 잔여 노동력은 노동집약적 기업이 주가 된 근대 산업부문에 제공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말-20세기 초경에 이르는 시기동안에는 급속한 인구성장추세와 함께 경제구조의 변화도 급격하게 이루어져 경산업분야에서 중산업분야로 전환되게 되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드디어 과잉인구의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이 끝나고 세계가 경제불황에 돌입했을

때,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비로소 인구문제, 즉 인구폭발의 심각성이 현실화되었다. 즉 일본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일본의 경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전후시기에 와서는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함께, 1945-47년 사이에 연평균 인구성장률 4.14%라는 비정상적 성장속도를 기록하면서 훨씬 더 심각한 인구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심각한 인구폭발의 주 원인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후 일본으로 돌아온 전쟁 군인들, 시민들, 특히 전후 베이비붐으로 인한 자연증가에 있었다. 그 당시 출산력 저하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으므로 인공유산의 실행뿐이었다. 이에 따라 1948년에는 우생보호법(Eugenic Protection Law)이 제정되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공유산이 합법화되었고, 1952년부터 가족계획법과 이에 관련한 출산력저하 활동들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출산력과 함께 사망률도 동시에 급격히 저하하여 인구증가율의 실제적인 감소는 역력하지 않았으며 전후의 인구증가율은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1% 정도의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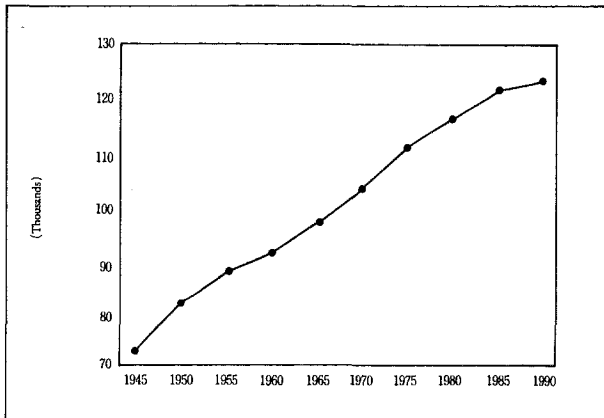
일본에서의 출산력 수준의 급격한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일본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여성 취업의 증가이다. 일본경제의 호전과 함께 생산성이 증가하고 노동력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게 되었다. 1960-1990년 기간동안의 여성 취업율의 변화를 보면 실제적으로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들의 취업구조면에서의 변화는 상당히 커서, 예를 들어 20-54세 결혼한 여성들 중 임금 취업자의 비율을 보더라도 1963년의 13%에서 1990년에는 42%로 증가했으며, 이는 어느 선진국보다도 훨씬 빠른 증가율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용고(part-time) 취업자일 경우 상용고(full-time) 취업자에 비해 낮은 임금뿐만이 아니라, 평생고용제나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체계(seniority wage system)의 부분적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조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상용고로 취업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본인들의 가치관이 지대하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노후보장(old age security)으로서의 가족 혹은 자식에 대한 기대가 점차 저하되고, 자식에 대한 질적 요구는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이 지속될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출산력의 저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망률 수준의 감소와 더불어 계속적인 출산력의 저하로 말미암아 2012년 경에는 일본인구가 실제적인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1993), 100년 이내에 인구가 반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 일본 자치성 발표에 의하면 일본은 1994년 현재 사상 최저인 0.29%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저사망률, 저출산력으로서의 인구변천과정을 완료한 일본에게 있어 1970년대 이후 “제2의 인구변천”으로 불리워지

〈표 1-1〉

## 일본 인구성장율의 변화

연도	인구수 (1,000명)	연평균 인구성장율
1872	34,806	
1900	43,847	0.82
1920	55,963	1.18
1925	59,737	1.31
1930	64,450	1.52
1935	69,254	1.44
1940	71,933	0.76
1945	72,147	0.06
1947	78,101	4.14
1950	83,200	2.11
1955	89,276	1.41
1960	93,419	0.91
1965	98,275	1.01
1970	103,720	1.08
1975	111,940	1.53
1980	117,060	0.89
1985	121,049	0.67
1990	123,611	0.42
1991	124,043	0.35
1992	124,452	0.33



자료: 日本 厚生省 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1993.

고 있기도 하다(Ogawa and Retherford, 1993).

1970년대 이후 일본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는 고출산 여성들의 감소 뿐만이 아니라, 독신여성들의 증가, 무자녀 혹은 한 자녀 가족의 증가, 결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즉 결혼의 연기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출산력의 지속적인 감소는 결국 젊은 연령층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인구고령화 현상의 급속화를 초래한다. 이로 인하여 일본 사회는 전체적으로 경제적 활력을 잃게 되고,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출산력의 감소로 인해 뒤늦게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현상과 소비자의 수적 감소문제 또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 3. 일본 인구의 고령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본의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발전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특히 1940-50년대 출산력 저하 활동들의 활성화로 인한 급격한 출산수준의 저하<sup>2)</sup>는 1955년 이후 부양인구비의 급격한 감소(1970년에는 부양인구비 45로 최저수준에 달함, <표 2> 참조)를 가져와, 경제성장의 촉진요인이 되어 왔다. 한편 노년인구의 비율은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말미암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장래 추계에 의하면 1990년에 노년부양인구비 17.3, 노령화지수가 66.2이던 것이 2000년에 이르러서는 노령화지수가 100을 훨씬 넘어서면서 2020년에는 노령화지수 165.1로 노년인구의 수가 소년부양인구의 2배 가까이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부양인구비는 노년인구비율의 급속한 증가로 말미암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비록 어떤 특정한 연령기준이 통계적 편의를 위하여 적용되지만, 인구고령화의 주된 관심은 사실상 어떤 특정한 연령이 아니라 “고령화”현상 그 자체에 있다. 고령자의 정의나 비율의 경계를 정하는 일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센서스정의에 의거하여,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하여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 혹은 노년인구로 간주한다. 그리고 인구학에서는 보통 전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는 시점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의 시작으로 본다. 또한 그 비율이 14%를 초과하게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 합계출산률의 변화를 보면, 1947년에 4.54, 1950년 3.65이던 것이 1960년에는 2.00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후 꾸준히 감소하여 1992년에는 1.50을 나타낸다(日本 厚生省 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1993).

〈표 1-2〉 일본의 부양인구비와 노령화지수의 변화

연도	부양 인구비**			노령화지수***
	소년인구	노년인구	총	
1920	62.6	9.0	71.6	14.4
1930	62.4	8.1	70.5	13.0
1950	59.4	8.3	67.7	13.9
1955	54.6	8.7	63.3	15.9
1970	34.9	10.3	45.1	29.4
1975	35.9	11.7	47.6	32.6
1985	31.6	15.1	46.7	47.9
1990	26.2	17.3	43.5	66.2
2000*	22.4	25.1	47.5	112.2
2010*	26.3	34.1	60.4	130.0
2020*	26.2	43.2	69.4	165.1

자료: 日本 厚生省 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1993.

\* 人口問題研究所의 『日本の 將來推計人口』에 의거함

\*\* 부양인구비는 인구노령화의 한 지표로 실제 경제활동에의 참가여부와는 관계없이 인구의 연령 구성상 노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규정한 연령의 인구, 즉 피부양인구(15세 미만, 65세 이상)를 노동가능연령 인구, 즉 부양인구(15-64세)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또한 피부양인구층은 소년과 노년 인구층으로 나누어 부양인구비도 소년부양인구비와 노년부양인구비로 나누어 계산하기도 한다.

\*\*\* 노령화지수는 보통 (노년인구/소년인구) × 100 으로 계산한다.

로 보며, 21%가 넘어서는 시점부터 초고령사회(ultra-aged society)라고 부른다(內海洋一 編著, 1992).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년인구수의 비율로 볼 때 일본은 1970년에 7.07%로 이미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1990년 현재 12.05%, 최근 일본 자치성 발표에 의하면 1994년 현재는 13.87%로 집계되어 고령사회의 문턱에 다가섰고, 또한 2010년에는 21.2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1-3〉 참조).

현재 일본의 고령화수준은 스웨덴, 스위스나 영국,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의 고령화수준과 비교할 때 아직은 낮게 나타난다(〈표 1-4〉 참조). 그러나 추계인구구성을 보면, 고령화속도는 일본이 다른 어느 서구 국가보다도 훨씬 빠르며, 앞으로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가장 높은 노년인구의 비율을 갖는 나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과정에 있어 고령화 사회(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 데 소요된



〈표 1-3〉

## 일본의 연령집단별 인구비율의 변화

연도	연령집단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884	31.62	62.64	5.72
1908	34.22	60.53	5.25
1920	36.48	58.26	5.26
1930	36.59	58.67	4.76
1940	36.68	58.52	4.80
1947	35.30	59.90	4.79
1950	35.37	59.69	4.94
1960	30.04	64.23	5.73
1970	23.93	69.00	7.07
1980	23.50	67.35	9.10
1985	21.51	68.16	10.30
1990	18.19	69.50	12.05
1995*	16.02	69.45	14.53
2000*	15.18	67.79	17.03
2005*	15.64	65.24	19.12
2010*	16.37	62.35	21.28
2015*	16.34	59.53	24.14
2020*	15.45	59.04	25.51
2025*	14.50	59.71	25.79

자료: 日本 厚生省 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1993.

\* 人口問題研究所의 『日本の 將來推計人口』에 의거함

기간을 비교해 보더라도, 프랑스의 경우는 130년, 스웨덴 85년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최소 5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 반면 일본의 경우는 겨우 2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변천을 경험하는 어느 국가이건 인구변천의 중요한 부산물로서 인구의 고령화와 개인 수명의 연장을 경험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의 고령화는 전인구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현상을 의미하고, 이는 주로 출산력의 변화에 기인한다. 반면에 수명의 연장은 개개인에 대한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고령화 현상으로 이는 사망력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P. Hauser, 1983). 인구변천의 과정, 즉 출산력과 사망력의 감소는 인구의 두 극단적인 연령집단에 전혀 상반된 힘으로 작용된다.

인구의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학적 현상에 대하여 많은 인구학자들은 급격한 연령구조의 변화가 두 극단적인 연령집단인 15세 이하의 소년인구집단과 65세 이상의 노인

〈표 1-4〉

##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추이: 선진국 비교

	1950년	1990년	2025년	7%-14%도달 소요년수 (연도)
미국	8.14	12.56	18.49	70년 (1945-2015)
독일	9.72	14.55	20.51	45년 (1930-1975)
스웨덴	10.25	17.80	20.86	85년 (1890-1975)
프랑스	11.38	13.99	21.18	130년 (1865-1995)
스위스	9.61	15.06	21.67	50년 (1935-1985)
영국	10.73	15.66	19.45	50년 (1930-1980)
일본	4.94	12.05	25.79	25년 (1970-1995)
전세계	5.1	6.2	9.7	
선진국	7.6	12.0	18.3	
전도상국	3.8	4.5	8.0	

자료: 日本 厚生省 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1993.

인구집단에게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말디스적인 관점에서 비롯된다. 즉 출산력의 저하로 점점 줄어드는 소년인구집단에게는 가족의 자원이나 사회 서비스, 특히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경쟁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오는 반면, 사망력의 감소로 급속히 증가하는 노년인구집단의 경우는 의료혜택, 양육원(nursing home), 사회보장기금 등의 노년기의 자원에 대한 압박요인으로서 문제성을 띠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따라서 연령구조의 변화 등 제반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이러한 자원제공을 위한 공공정책결정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양인구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주된 주체는 가족과 국가이며, 그 중에서도 가족이 거의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제공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지니는 노년 피부양자들의 부양의무가 점차적으로 사회에 전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가족이 지니게 되는 과중한 부양부담과 아울러 가족체제의 변화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새뮤얼 프레스톤(Samuel Preston, 1984)과 같은 인구학자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일차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대가족이 점차적으로 과거의 가족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국가가 소년피부양인구에게 쓰는 공공자원과 비용은 소비비용(consumption expenditure)인 동시에 투자비용(investment expenditure)이 될 수 있지만, 노년피부양인구에게 쓰는 비용은 거의가 소비비용이기

때문에 노년인구의 부양책임은 오히려 가족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가족을 가장 절대적인 사회적 기초집단으로 보고 있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회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가족적 기반의 약화, 가족기능의 저하를 염두에 두고 가족의 결속을 위한 대책을 중시하고 있으며, 정책의 대상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宮本益治, 1992).

### Ⅲ. 일본 가족의 변용과 고령자부양 기능의 한계

#### 1. 일본 가족의 변용과 고령자 부양문제

일본가족은 다른 선진 서구국가의 가족변화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나, 일본의 경우도 가족이 점차적으로 기능면에서 변화를 경험해 왔고, 심지어는 일본가족의 해체 혹은 새로운 가족의 재조직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점점 고령화라고 하는 변동요인이 가세되면서 일본가족의 전망은 실상 어렵게 여겨지고 있다.

우선 일본가족의 변용과정을 가족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戰前 일본가족은 家父長的 제도하에서 호주권과 가계상속이 그 주가 되었고, 가계상속인으로서의 호주는 가족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녔다. 특히 과거 일본에서는 산업화가 특수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家제도하에서의 가족이 生命再生産機能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었다. 산업화는 본래 시장의 발전, 이윤의 추구에 유리한 노동자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그런 노동자의 재생산에 적합한 핵가족 형태나 이념을 창출하였으나, 일본에서는 권위주의적인 家父長에 의한 가정의自治를 존중하는 家제도에 의해 전근대적인 생명재생산구조의 잔존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개개인의 가족성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족은 자신의 생명재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곳이었고, 특히 고령자에게는 자기생명과 생활을 위한 유일한 장소였다. 물론 그 당시에는 가족이외의 지역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가 미약했고 공적부양도 발달하지 않았다(宮本益治, 1992).

戰後시기에 와서는 근대적 사회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법률상의 家제도는 폐지되었고, 가족의 생명재생산기능은 근대적 사회구조의 일환으로 재조직되었다. 민법개정, 민주교육 등의 전개로 개인의지존중, 자발성, 여성해방 등 권위주의적 가족정서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1950년대까지는 아직도 이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고 감정은 전통적인 것에 집착하였다.

그 후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는 고도의 경제성장,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취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대량의 도시 노동자집단이 탄생하였고, 家제도는 실질적으로 해체되었다. 국가적인 가족이념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동이 상

호작용하면서 가족의 근대화는 밖으로부터 급속히 추진되었다. 경제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家産과 家業의 계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3세대 가족을 필요로 했던 농업종사자와 도시 자영업자들의 기반이 광범하게 약체화하였고, 취업지중에서 노동자나 샐러리맨으로 불리우는 고용자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한편 인구의 대도시집중이 진행되면서 일본 가족의 중심은 핵가족형태를 주로 하는 도시의 노동자가족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핵가족 세대수의 증가와 함께 세대의 급격한 소규모화<sup>3)</sup>가 지속되었다. 이렇듯 가족의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가족은 생산기능을 상실하였고, 가족내의 생명재생산기능은 약화되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의 핵가족화는 직계 3세대 가족이 둘 이상으로 분해하는 世代分離型보다는 오히려 직계 3세대 가족으로부터 젊은 층의 독신자가구가 도시에 흡수되어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는 創設型이 많았으며, 따라서 실제적으로 핵가족화로 인해 고령자가 자식과 별거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1973년 오일 쇼크를 계기로 한 70년대 중엽이후 일본의 경제, 산업의 방향전환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에 큰 영향이 있었다. 일본기업의 減量經營수행으로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 과밀노동의 부담이 주어졌고, 또한 減量經營의 일환으로 임시직이나 파견노동자형태의 불안정노동자의 수요가 생김에 따라 일하는 주부가 증가하게 되었고, 24시간 주부가 가정내에서 존재함을 전제로 했던 과거 가족의 구조가 기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가족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속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고령자는 제쳐 놓더라도 모든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을 생명재생산의 場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가족은 점차적으로 정서를 충족시켜주는 場으로서의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다.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가족에게서 기대되는 정서로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었으며, 고령자와 자식(가족)과의 정서적 교류는 다양화되고 선택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변용을 통하여 볼 때, 고령자의 부양 문제는 어느 정도 가족기능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家父長制度의 폐지가 40년 정도 지난 현재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령자가 자식가족의 생명재생산기능에 전면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정비되어 가고 있다. 또한 고령자중에도 부부 혹은 단신으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3) 보통세대의 평균가구원수를 보면 1920년 이후 5명 전후에서 변하고 있던 것이 1955년 이후 감소를 지속하여, 1975년에는 3.45명으로 감소하였고, 1990년에 와서는 3.06명이었다(厚生省 人口問題研究所, 1993).

65세 이상 노인인구중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 거주인구 비율의 변화를 보면, 1960년의 7.0%에서 1990년에는 24.1%로 높은 증가를 보이며, 1인가구 거주인구의 경우는 그 비율이 1960년에는 3.8%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10.9%로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1-5〉 참조). 이러한 노인들의 독립적 거주성향은 일본의 경우 대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sup>4)</sup> 이것은 특히 대도시의 경우 가족의 변화로 가족의 생명재생산구조가 핵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점, 고령자와 자식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점, 고령자의 생명재생산을 유지하는 사회집단과 조직이 발달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설명된다.

〈표 1-5〉 일본 노인인구의 가구형태분포의 변화

	「부부」가족	기타 친족가족	1인가구	기타 비친족
1960	7.0	87.4	3.8	1.8
1965	9.2	84.3	9.2	4.6
1970	11.7	79.7	5.3	3.3
1975	15.1	74.4	6.6	3.8
1980	18.1	69.8	7.8	4.3
1985	20.6	65.5	9.2	4.7
1990	24.1	60.6	10.9	4.4

자료: 1960-1985년은 「日本の人口・日本の社會」;

1990년은 日本厚生省 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1993.

한편으로는 오늘날 대도시에서의 지가상승 등으로 3세대 동거를 추진하는 정책적 원조나 주택산업(2세대 주택판매 등)에 의해 親子同居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나, 실상은 3세대 동거의 경우에도 과거 家父長的 제도하에서와는 달리 두 집단이 동거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고 양 세대간의 공간분리와 기능분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동거의 목적이 가계의 계승이 아니고, 부부와 자식의 세대가 각각 핵가족의 발달과제를 축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동거하는 자식은 반드시 장남이 아니며, 또한 계속적인 동거보다는 오히려 도중동거가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빠른 인구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많은 연구들이 노인들의 거주문제 혹은 노인과 자식과의 동거문제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들에게의

4) 지역별로 볼 때, 도시지역에서의 노인부부만의 가구나 혼자 사는 비율이 농촌지역보다 높으며, 지역간 비율의 차이는 점차적으로 커져, 1985년의 경우 도시에서는 노부부끼리만 사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2.3%,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10.0%인데 반해, 농촌은 훨씬 낮은 비율인 각각 16.6%, 7.5%였다(日本人口問題審議會 외, 1988).

介護제공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노인들중 자식과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서구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은 높게 나타난다<sup>5)</sup>. 이러한 높은 자식과의 동거경향은 거주선택에 있어서 아직도 일본 노인들은 자식과의 동거를 선호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확대가족에 사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가족구성원들, 특히 며느리 혹은 딸들이 아직도 노인부모의 개호자로서의 특별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과거의 높은 비율과 비교해 볼 때 노인들의 자식과의 동거율이 급히 낮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식과의 동거가 아직은 일본사회에서 가족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동거의 경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본의 인구학자들은(Hirosima, 1993 등) 가까운 장래에 서구사회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전망은 없다고 본다.

차츰 증가하는 노인들의 독립적 거주의 경향은 연금제도, 사회복지제도 등의 제도적 개선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가족내에서 개호자의 역할을 담당하던 중년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sup>6)</sup>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점차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추세는 며느리와 같은 확대가족안에서의 가족성원들이 담당하던 개호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경시하는 경향을 만들 수도 있으며, 반면에 지역사회나 정부의 기능이 더욱 더 이러한 노인들 가구의 개호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어질 수도 있다. 노인인구와 젊은 세대의 부양외식의 차이를 보더라도 앞으로 노령세대가 될 젊은 층의 부양외식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중 약 50%정도가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막상 부양책임을 져야 할 20-29세의 젊은 층은 15.8%만이 가족에게 부양책임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장래의 노인들의 높은 자립외식을 기대하게 해 주며, 따라서 앞으로 증가할 고령인구의 자립적인 생활여건, 근로수요 등에 대처할 사회적, 경제적 제도의 구축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일본 東京都에 있는 노인병원의 상담원인 한 사회복지요원과의 심층면접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가족 가치관이나 규범의 변화가 상당히 커서, 예로 20년전에는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식이나 며느리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나, 10년 전에는 모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의탁하는 것이 더 낫게 생각되었고, 요즘에 와서는 좋은 병원에 보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부모가 쓰

5) 1986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중 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일본은 66%이었고, 서구국가의 경우는 미국이 14%, 덴마크가 7% 등으로 일본이 훨씬 높은 자식과의 동거율을 보인다([International Comparative Survey on the Lives and Perceptions of Elders] 1986).

6) 예로 일본의 40-54세 중년여성들의 취업율을 살펴 보면, 1965년에는 19.2%에 불과하던 것이 1985년에는 41.6%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인다(Hirosima, 1993)

리졌을 때 포기하는 자식의 평균연령층이 점차 내려가는 추세라고 한다. 이처럼 가족의 노인부양역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병원비용의 부담 때문에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2. 가족의 고령자 부양기능의 저하

이미 논의되었듯이 인구학적 변천은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가족 및 가구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사회적 결과를 동반한다. 사망력의 감소로 인한 개개인의 평균수명연장은 결과적으로 가구내에서의 세대수를 증가시키고, 각 가족구성원들의 가족생활주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인 확대가족안에서의 가구주나 年長의 구성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즉 가족내의 세대수 증가 및 다세대 가족주기의 연장은 전통가족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가족계승의 연속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전통적 확대가족구조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부양자수의 증가는 젊은 세대, 생산연령층 세대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족구성원들에게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족 재생산성이 감소하게 되고, 더군다나 출산력의 저하로 인해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부담은 증가한다. 만약 사망력의 저하로 인하여 성인자녀와 노부모들이 모두 긴 생애를 살아 간다면, 이 두 집단이 더욱 더 상호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가족안에서의 어린 아이들의 감소는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세대간 관계를 개선시킬 수도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자원의 증가도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이고 급속한 노년연구비용의 증가와 그들이 가족자원의 일방적인 수혜자임을 생각할 때, 중년기 연령층의 부양부담은 커지며, 또한 그들이 책임져야 할 집단은 한 세대의 노년층이 아닌 두 세대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일본사회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최고로 이질적인 세대가 동거하는 사회이다. 우선 생활수준의 측면에서, 多産多死 시대에 태어난 현재의 고령자들은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 敗戰의 혼란기속에서부터 고도경제성장기에 장년기를 보내고, 노년기에 들어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한 세대이며 多産小死 시대에 태어난 현재의 중,장년층은 고도성장기에 청년기를 보내고 중,장년에 풍요로운 사회를 맞이한 세대이고, 현재의 청년층은 小産小死의 고도성장기에 태어나 풍요한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로 각기 다른 인구변천의 역사적 단계, 사회경제적 환경속에서 달리 살아왔다.

인구학적으로도 인구변천 속에서 세대간의 비율도 크게 변화하여 1950년 당시 35-49세 중년 연령층 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세대의 인구수를 보면, 이들의 부모세대 인구는 0.2인, 자식세대는 2.2인이던 것이, 1985년에는 각기 0.3인과 0.9인, 그리고 앞으

로 2020년경에는 0.9인, 0.8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년층 세대가 자녀야 할 고령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부담이 30년 정도 후에는 3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친을 부양하는 의식을 보면, 현재보다도 중년세대가 고령자가 되는 30년 후에는 더욱 약화되어 가족내에서 고령자의 부양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IV. 고령자 개호 및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

##### 1. 고령자의 개호문제

과거 전전 가족제도하에서 가족에 의한 노친 부양기능은 동거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부모는 자식부부의 부양을 보장받기 위하여 家産을 물려 주고 노후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양을 전면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후에 와서 가족제도가 “부부가족제”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바뀐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노친과 자식부부가 동거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동거를 통상적으로 노친의 전면적 부양의 관행으로 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고령자의 자식과의 동거율 저하는 동거관행에 있어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동태의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출산력의 저하로 동거 가능한 자녀가 없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동거율은 점차 저하되고 있다. 고령자의 자식과의 동거관행에 있어서는 양친이 건강할 때는 따로 사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자식이 결혼하자마자 자식부부와 함께 동거하는 유형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의식의 변화와는 별도로 고용자 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취업, 특히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점때문에 3세대 동거가 실상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자의 문제는 노인들과 자식세대와의 동거나 별거문제에 국한하여 노인이 자식 등의 가족과 같이 산다면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첫번째의 초점이 되는 것은 누가 보호를 할 것인가라는 개호문제이고, 이는 가족의 문제로 처리된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가족체제의 변화가 있었고,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상실과 가족의 자립, 자조능력의 저하에 의해 가족문제로서의 고령자의 문제가 부상된다.

일본에서는 사망수준의 저하로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병에 걸린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sup>7)</sup> 누워 있는 노인, 치매성 노인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후생성(厚

7) 75세 이상 노인들의 有病率(노인인구 1000명당 조사기간 중 3일 이상 경과한 발병건수)추이를 보면 1955년 70.8, 1965년 177.5, 1975년 328.1, 1985년에는 567.8로 높은 증가를 보인다



生省) 추계에 의하면, 이러한 재택보호성 노인의 수가 앞으로 30년쯤 후에는 3배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장수화에 따른 고령자의 개호문제가 고령화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노인들의 의식에 있어서는 경제적 자조 노력의 경향과는 달리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개호를 받고 싶어 하는 대상이 주로 가족인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아직까지 개호에 있어서 가족에의 기대는 절대적이다(표 1-6).

〈표 1-6〉 노후에 신체적 개호를 받고 싶은 대상: 국제비교

기대하는 개호자	일본	타이	미국	덴마크	이탈리아
가족, 친족	94.8	96.2	68.8	20.2	88.4
이웃, 친구	3.4	6.1	17.6	0.7	7.3
민간복지단체/ Volunteer	5.4	0.5	14.9	2.2	8.6
공적 서비스 (복지사무소 등)	14.8	8.9	9.2	29.9	13.5
유료 서비스 (使用人, 가정부 등)	4.9	0.7	40.5	39.4	6.3
기타	1.3	1.0	8.7	10.0	1.5

\*주: 복수응답임.

자료: 總務廳 長官官房 老人對策室, 「노인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1986.

실제로 일본 가족내에서의 개호는 약 70%가 여성 가족원에 의해 수행된다(宮本益治, 1992). 현대가족은 전통적으로 가족이 가지고 있던 친족 네트워크나 근친관계로부터 고립된 상황속에서 가족안의 여성 한 사람당의 부양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여성에게 남성 이상의 무거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생활주기의 측면에서도 보면, 노후 혼자가 될 확률은 여성이 높고, 배우관계를 보더라도 고령이 되어도 남성에게는 부인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노인이 가족의 개호를 필요로 할 경우, 남성은 개호자로서의 배우자를 의지할 수 있으나, 고령자가 고령자를 개호해야 할 때 개호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성 고령자의 경우는 아들, 딸이 중요한 개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돌보아야 할 고령의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노부모를 돌보아야 할 여성은 취업과 같은 다른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 개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경우가 많다. 고령의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일본여성이 아무일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소한 감기마저 낫지 못해 어머니를 단기체류양육원(short-stay home)에 보내야만 했다는 이야기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여성들의 고충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호를 하는 측면에서나 개호를 받는 측면에서나 개개인의 자립을 기본으로 하여 그것을 위한 조건을 사회적으로 정비하는 것 또한 필요하게 된다.

## 2. 고령자의 생활보장문제: 경제적 자조노력형의 일본 노인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령층 인구의 증가는 “노인문제”성격의 변화를 가져 온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개호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노인문제의 하나는 바로 노인들의 생활보장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노화현상에서 비롯되는 노인문제에서 이제 인간 생활수단인 노동으로부터 배제당하는 노인문제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고령자 비율의 증가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취업보장은 고령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엄청나게 들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에서도 더욱

(표 1-7) 주요국의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노동력 참여율 비교

주요국	(연도)	남성	여성
이집트	(1986년)	25.8	0.6
이디오피아	(1991년)	74.9	45.6
아르헨티나	(1990년)	23.5	2.9
멕시코	(1990년)	45.9	5.4
미국	(1991년)	15.5	8.0
인도네시아	(1989년)	56.0	24.9
한국	(1991년)	40.9	18.8
파키스탄	(1991년)	52.0	7.4
덴마크	(1990년)	20.5	6.1
프랑스	(1991년)	3.0	1.5
독일	(1990년)	5.2	2.0
영국	(1990년)	8.6	3.3
오스트레일리아	(1990년)	9.2	2.4
일본	(1991년)	38.0	16.6

자료: ILO, 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 1992;

日本 厚生省 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1993;

日本 勞動力調査報告

중요하다. 한편, 노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 심리적 복지의 증대라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생산 연령층인 15-64세의 노동력 인구가 1995년에 들어서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는 선진국중 고령인구의 노동력 참여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표 1-7). 이것은 호황의 경제사정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노인인력이 대체되고 있으며, 아직은 연금제도가 미성숙 단계이므로 노인들은 자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하며, 또한 정부의 고령자 취업대책이라는 강력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성의 「고령자 취업실태조사」에 의하면, 65-69세의 연금 수혜자들 중 남성의 평균 취업율은 54.5%, 여성은 28.9%이었으며, 평균 연금수급액은 남성의 경우 12.8만엔, 여성은 5.3만엔이었다. 취업의 이유를 보면, 여성의 56%, 남성의 72%가 “자기 가족의 생활유지”, 혹은 “생활수단”의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었다. 이것은 고령자들의 생활실태의 한 면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개호문제 이상으로 노후생활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생활보장의 문제이다. 고령자의 적잖은 대다수가(특히 고령여성) 저소득층으로, 생활의 불안정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경제적 약자”로서의 고령인구가 겪는 빈곤문제의 원인으로 노동의 권리가 성, 연령에 있어서 침해받고 있다는 것, 또 그것이 연금제도의 불비와 결속되어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총리부의 한 조사(1975년)에 의하면 60-74세 노인들 중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가 50% 정도이고, 자식과 별거하는 노인들 중 그 비율은 훨씬 낮다.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노인 중 생활비 전액을 받는 경우는 60%, 나머지는 생활비의 일부만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에 의한 노친의 경제적 부양기능의 저하는 부분적으로 연금제도의 충실화라는 이유도 있지만, 동거율의 저하<sup>8)</sup>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는 자식을 비롯한 가족과의 동거율의 저하, 공적연금의 성숙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가족에 의한 경제적 부양이 사회에 의한 부양으로 대치되어 가는 전환점에 있다. 일본 고령자들의 수입원을 보더라도 자식 등 가족으로부터의 원조보다는 공적연금과 취업이 가장 주된 노후 수입원이 되고 있다(표 1-8).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서구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노인들의 노후 공적연금에의 의존도가 가장 높고, 사적연금, 취업에 의한 수입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한국 등에서는 자식으로부터의 원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에 의한 수입이

8)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식과의 동거 동향을 살펴보면, 1960년에는 87.4%이던 것이 1985년에는 65.5%로 감소하였으며, 1985년 자식과 동거하는 고령자들의 경우 약 60%는 직계의 기혼자녀와 동거, 20% 정도는 형제, 자매 등의 방계친족을 포함한 세대에서 살고 있었으며, 나머지 20% 정도는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었다(본문 <표 1-5>참조).

그 다음의 주요 수입원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그 중간에 위치한 경우로, 개발도상국의 “가족부양형” 노인부양 유형에서 선진국 유형인 “사회부양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일본의 노인들은 일할 수 있을 때 노후를 위해 준비해 놓고 가족이나 공적원조에는 기대지 않으려고 하는 “자조노력형”의 유형을 보인다(人口問題審議會 외, 1991). 이처럼 노후의 생활을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사람은 감소하고, 대신 공적연금 또는 자조노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동향을 볼 때, 가족에 의한 노친의 경제적 부양기능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노후 수입원: 국제비교 (60세 이상 남녀 대상)

노후 수입원	일본	한국	타이	미국	영국
취업	31.3	16.2	29.9	15.2	6.5
공적연금	34.9	0.8	2.2	53.9	64.0
사적연금	3.8	0.0	0.2	10.0	13.5
저축수입	2.1	2.2	1.7	1.7	1.6
재산수입	5.3	3.3	3.8	14.5	2.2
자식 등의 원조	15.6	72.4	58.2	0.3	0.3
생활보호	1.2	1.2	0.1	0.7	3.1
기타	5.8	3.8	3.9	3.7	8.7

주: 한국, 영국은 1981년 자료; 일본, 미국, 타이는 1986년 자료임.

자료: 總務廳 長官官房 老人對策室, 「노인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3. 고령자의 정서적 부양문제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변용을 통하여 과거 가족이 가졌던 생명재생산 기능은 약화되고 부부중심의 정서적 기능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동거관행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령자들이 노후에 가족생활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 행복감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적으로는 과거 1920년 당시를 보더라도 3세대 이상 동거세대의 비율은 30%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이것은 요즈음보다 분명 낮은 것으로서, 그 당시 높은 사망률의 인구학적 상황으로 보아 3세대가 동시에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요즈음에 와서는 3세대가 동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전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친자 동거의식이 확실히 변화함에 따라 3세대 이상 동거세대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자식세대와 동거하는 노인들 경우에도 가족과 함께 단란한 노후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 자식과의 동거와는 상관없이 노후 외로운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1987년 60-74세 고령자들의 자유시간활용에 관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 정도가 자식과 동거하고는 있었으나,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노인의 비율은 32.1%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식과 동거하고 있더라도 반수정도는 가족과 단란한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가족이 지나는 정서적, 정신적 기능이나 의의는 이전과 상당히 다르다.

한편 일본 고령자들의 가족의 활동성향을 보면 다른 국가, 특히 미국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인다(표 1-9). 활동내역별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일본 노인들의 비율을 보면, 일본 노인들이 노인 그룹활동, 자원봉사활동, 취미활동의 순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나, 각 활동에의 참여비율은 10-20%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교적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72.8%, 종교활동 64.3%, 취미모임 43.6% 등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임이 대조적이다.

이처럼 일본 노인들은 가족이외의 활동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고 일본 고령자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다른 나라의 노인들보다 높게 나타나지만,<sup>9)</sup> 앞으로는 현재의 다산다사(多産多死)시대에 태어난 고령자집단에서 다산소사(多産少死)시대의 고령자집단으로 바뀌게 되고, 고령자 자신의 개인주의적 의식도 높아질 것이며, 60, 70대의 건강한 고령자도 늘어날 것으로 고령자의 사회참가활동의 촉진을 위한 적극

〈표 1-9〉 고령자들(60세+)의 사회적 활동참여

	일본	타이	미국	덴마크	이탈리아
정치활동	5.1	15.4	22.0	7.2	2.3
종교활동	11.1	81.1	64.3	14.0	25.9
학습활동	7.9	11.0	22.7	15.3	3.0
사교적 모임	5.1	43.2	72.8	26.3	11.0
취미활동	13.7	14.0	43.6	22.4	4.9
스포츠활동	8.9	5.0	22.6	12.6	3.4
자원봉사활동	15.0	17.4	34.2	9.5	6.4
노인그룹활동	21.7	3.0	32.4	6.8	3.7

자료: 總務廳 長官官房 老人對策室, 「노인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1986

9) 總務廳 長官官房 老人對策室의 「노인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1986)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물질적인 풍요로운 사회의 도래로 전반적인 생활에의 만족감은 일본이 가장 높지만, 반면에 고령자의 자살율은 일본의 경우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의 2-3배에 달하고 있다.

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점차적으로 3세대 동거율이 저하되고 있고, 동거가족내에도 개인주의가 침투하고 있으며, 빈번하지 않은 별거 가족과의 교류경향 등으로 미루어 종래 가족이 지니던 노친에 대한 정신적, 정서적 부양 기능도 다른 경제적, 신체적 부양기능처럼 변질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인구의 고령화현상과 아울러 일본사회변화의 한 측면으로서의 가족의 변용과 관련하여 고령자와 가족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일본 사회는 출산력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젊은 연령층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일본 자치성 발표에 의하면 일본은 1994년 현재 사상 최저인 0.29%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7%로 집계되고 있다. 앞으로 2000년에 들어서면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노년인구비율을 갖는 나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추세와 함께 일본에서는 노년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결과적으로는 사회보장기금, 의료혜택 등의 사회적 자원과 가족의 노인부양부담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고령사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미 노인의 문제를 가족문제로 한정시켜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점차적으로 노인들이 개인주의적, 독립적인 의식을 소유하게 될 것을 기대하여, 앞으로 증가할 고령인구의 자립적인 생활여건, 근로수요 등에 대처할 사회적, 경제적 제도의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기능의 회복,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노인들의 재택개호를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그를 위하여 시설,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정책적 지원을 확립하고 있다. 특히 가족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과제를 보더라도, 우선 가족형성(결혼)에 관한 지원책과 출산, 육아에 관한 지원책이 있다. 이를 위하여 주택사정의 개선, 육아수당, 교육비 절감, 육아휴업제도 등의 보급, 보육시설의 충실 등이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설정되고 있다. 또한 가정생활에 대한 지원책, 노인부양에 대한 지원책이 정책적 과제로 되어 있다. 고령자만의 세대, 특히 가족이나 친족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경우, 그들의 개호를 위하여 고령자가 거주하는 지역기반의 개호와 체제를 정비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호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호의 부담, 특히 여성 개호자들의 부담을 격감시키기 위하여 가정봉사자(home helper) 등 재택개호 서비스, 주간개호(day-care) 시설의 충실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 고령자정책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으로, 고령자를 비롯한 부양인구에 있어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자원제공의 수단이라는 인식은 아직 지속되어, 1970년대 이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점차적으로 가족의 기반이 약화되고 가족기능이 저하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 정책적으로 가족의 중요성과 함께 가족의 결속을 위한 대책이 증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참 고 문 헌〉

宮本益治 編著

1992 『高齡化と家族の社會學』, 21世紀 社會學시리즈(5), 文化書 房博文社.

内海洋一 編著

1992 『高齡者 社會政策』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1993 『人口統計資料集 1993』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1992 『日本の將來推計人』

東京都

1991 『高齡者の生活實態:平成2年度東京都社會福祉基礎調査報告書』

東京都

1991 『高齡者の生活實態:平成2年度東京都社會福祉基礎調査報告書(統計編)』

人口問題審議會・厚生省大臣官房政策課・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1988 『日本の人口・日本の社會』, 東洋經濟新報社.

人口問題審議會・厚生省大臣官房政策課・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1991 『日本の人口・日本の家族』, 東洋經濟新報社.

家計經濟研究所

1991 『現代核家族の風景:家族生活の共同性と個別性』

森岡清志・中林一樹

1994 『變容する高齡者像』, 日本評論社.

經濟企劃廳

1993 『國民生活白書』, 大藏省印刷局.

三浦文夫

1993 『高齡者白書』, 全國社會福祉協議會.

## 厚生省

1992 『厚生白書:國連・障害者の十年』.

Hauser, Philip

1983 "Aging of Population and Labor Force for World, More Developed and Less Developed Areas and Their Regions: Population Aging 1970-2025; Labor Force Aging 1970-2000," NUPRI Research Series.

Hirosima, Kiyosi

1993a "Recent Changes in Gender Roles and Multi-generational Living Arrangement in Japan," Working Paper Series, No.14,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irosima, Kiyosi

1993b "The Living Arrangements and Familial Contacts of the Elderly in Japan," Reprint Series, No.13,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rgan, Philip *et al.*

1984 "Modern fertility patter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0(1).

Ogawa, Naohiro and Robert D. Retherford

1993 "The Resumption of Fertility Decline in Japan: 1973-92,"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4).

Preston, Samuel

1984 "Children and the Elderly : Divergent Paths for America's Dependents." Demography 21(4).

United Nations

1988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f Population Aging,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pulation Structure and Development.

WHO

1993 "Aging and Working Capacity," WHO Technical Report Series 835.



## Aging Population and Changing Family in Japan : Its Implications for Elderly Care

Young-Jin Park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of Japan in the aspects of family support for the elderly, arising out of the aging population and changing family.

In Japanese society rapid demographic aging has been taking place primarily as a result of continuous declines in fertility. In 1994,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had reached 0.29% which is the lowest record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persons (aged 65 and over) accounted for 13.9% of total population, and is projected to be the highest in the world in the year 2000. As Japanese population has aged, the family underwent a gradual transformation. Empirical observations confirmed that the nature and functions of families have changed and the decline in the co-residential multi-generational family was also evident.

Rapid aging an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in Japanese society have resulted in a higher burden of small family for the elderly support and consequently in a substantial shift in emphasis between social programmes, causing a significant change in the share of social expenditure going to the older age groups. However, Japanese governmental policy assesses the importance of family as a dominant provider of elderly care, and to that end, the government gradually implements policies, such as home based care, designed to maintain or even strengthen the role of the family in care for the elderly.

박영진, 통계청 사회통계과 통계사무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647-15 한타빌딩 8층

Tel : 222-1873(O), 449-9033(H)